

## “이거 왜 이래” ... 사죄 대신 호통 친 전두환

5·18 39년만에 광주법정 출석  
“발포명령 인정하냐” 질문에 ‘버럭’  
헬기사격·명예훼손 전면 부인  
76분 재판 ... 꾸벅꾸벅 졸기도

피고인 전두환(88)이 11일 5·18 민주화운동 39년만에 광주 법정에 섰다. <관련기사 2, 3, 6면> 역시나 사과의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전씨는 되레 5·18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이나 헬기사격에 대해 부정하고, 재판 내내 거짓말만 늘어났다. 자신에게 밀착 접근한 취재진에게 “이거 왜 이래”라며 호통까지 쳤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답답이 재판을 지켜보자고 했던 광주시민들은 전씨의 뻔뻔하고 무례한 행동에 도망치듯 떠나는 그의 차량을 가로막고 거세게 항의했다.

그동안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주장해온 전씨는 11일 오전 승용차를 타고 서울 자택에서 광주지방법원으로 왔다.

예상보다 1시간여 빠른 낮 12시 34분께 광주지법에 도착한 전씨는 예상과는 달리 건강할 모습으로 차량에서 내렸다.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된 후 2차례의 재판연기 신청과 2차례의 공판기일 출석거부에 이어 사실상 5번째만에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법원으로 향하던 전씨는 “발포 명령 부인하십니까”라는 취재진의 질문 과정에서 자신의 몸이 조금 밀리자 “왜 이래”라며 화난표정으로 고함을 지르는 등 정정한 모습이였다.

전씨의 첫 공판기일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1시간 15분간 진행됐다.

아내 이순자씨는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전씨와 나란히 앉았다. 전씨는 검찰에 이어 변호인의 모두 진술이 진행되자 졸다 깨기를 반복했다.

검찰은 전씨가 주도적으로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2·12 반란과 5·18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전씨의 대법원 판결문에 ‘광주에서 시위를 강경 진압할 것을 지시했다’고 기록된 점, 국가기록원 자료 및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관련 수사 및 공판 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조사해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과거 국가 기관 기록과 검찰 조사를 토대로 회고록을 썼을 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록한 것은 아니다”면서 “5·18 헬기 사격설의 진실이 아직 확인된 것도 아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또 “조비오 신부가 주장한 5월 21일 오후 2시 전후 광주 불로고 상공에서의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허위사실로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일부 방청객들은 헬기 사격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전두환 살인마”라고 소리치는 등 분노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재판부에 형사소송법 319조를



11일 광주지방법원에 출두한 전두환씨가 “발포명령을 부인하느냐?”고 묻는 취재진들에게 “이거 왜 이래”라고 고함치며 짜증을 내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근거로 이 사건의 범죄지 관할을 광주라고 볼 수 없다며 재판 관할 이전의 판결을 선고해 달라고도 했다.

이순자씨는 재판부에 편지를 전달했다. 전씨 부부는 재판이 끝난 뒤 30분 넘게 청사 내부에서 대기하다가 광주시민의 비난과 항의를 받으며 승용차를 타고 법원을 떠났다.

5월 단체들은 재판 후 법원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씨가 흑시 알츠하이머로 기억이 온전하지 못해 회고록을 잘못 쓴 것을 사과하지 않을까? 계엄군과 수사관의 무차별 폭력으로 아직도 부상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을까? 계엄군에 의해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

죄하지 않을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를 했던 게 사실이 라며 “그가 진심어린 사과를 할 때까지 성숙하고 냉철한 시민의식으로 준엄한 법의 심판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증거 정리를 위한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되며 오는 4월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다시 쏟아지는 ‘5·18 헬기사격’ 목격 증언

전두환(88)씨가 광주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자 이번 재판 최대 쟁점인 헬기사격에 대한 증언이 이어졌다. 증언자들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과 마찬가지로 1980년 5월 21일 오후를 사격 시점으로 꼽았다.

1980년 5월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한 김영이(69)씨는 11일 광주일보 취재진을 만나 “5·18 때 상무대에서 시신수습을 담당

하던 중 21일 오후 1시께 헬기사격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선호(사망 당시 45세)씨의 시신을 수습해 고향집으로 운구했다”며 “이 사실을 조 신부님에게 알려드렸더니 ‘헬기사격이 틀림없다’면서 크게 분노하셨다”고 밝혔다.

김씨에 따르면 광주시 동구 충장로 무등맨션 4층에 거주하던 김선호씨는 5월 21일 옛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가 일어나자 10층 옥상에 올라가 금남로쪽 상황을 살피다 갑자기 날아온 총탄에 맞고 숨졌다. 실제 계림1동주민센터가 5·18 직후 광주시에 보고한 ‘광주사태 피해상황 접수대장’에도 김선호씨는 5월 21일 오후 4시 30분께 무등맨션에서 사망했다고 기재돼 있다. 같은 가톨릭신자로서 평소 김선호씨와 잘 알고 지낸 김씨는 시신을 수습해 담양군 대치면 고향집으로 운구했다.

김씨는 김선호씨가 총을 맞은 위치가 금남로에서 다소 비껴난 무등맨션의 10층이었고, 당시 헬기 2대가 전남도청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보아 헬기사격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신했다.

같은 날 오후 김씨는 도청 인근에서 조비오 신부를 만나 김선호씨의 상황을 알렸다. 조 신부 또한 “헬기사격이 틀림없다”고 동의하며 크게 화를 냈다고 한다. 조 신부가 5월 21일 오후 1시 30분께 헬기사격을 목격한 점을 고려하면 조 신부는 이미 헬기사격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민간인이 사망했다는 점에서 분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주교 남동성당 청년회 소속이었던 김씨는 상무대 시신수습과 기독교병원 한철 분야에서 활동하며 윤공회 대주교, 김성룡 신부, 조비오 신부 등 가톨릭 사제들에게 시위 상황을 수시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었다.

김영이씨 “21일 무등맨션 옥상서 피격 김선호씨 시신 수습 조비오 신부에 알렸더니 ‘헬기사격 틀림없다’ 동의하며 분노”  
조광영씨 “도청 상공에 헬기 2대 ... 총성과 함께 불꽃 튀겨”

계엄군에게 지명수배된 김씨는 5·18 직후 한달여간 군산으로 피신했지만 불잡혀 모진 고문을 받아 지금도 몸이 불편하다.

지난 39년간 이 이야기를 남들에게 털어 놓지 않았다는 김씨는 “전두환씨가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거짓말을 하며 광주를 방문하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참지 못해 증언을 하게 됐다”며 “전씨가 이번 재판을 통해 용기 있게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11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전씨가 재판정에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조광영(79)씨도 광주일보에 헬기사격 목격담을 전했다.

5·18 당시 광주시 북구 풍향동 교육대학교 인근에 거주했던 조씨는 “정확한 날짜

는 기억나지 않는데 5·18 때 도청 상공에 헬기 2대가 날고 있었다”며 “오후 3시부터 1시간여 동안 총성과 함께 불꽃 튀기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다.

조씨는 헬기들이 조선대 뒷산부터 금남로 인근 등 여러 곳을 향해 총을 발사한 것으로 기억했다.

조씨도 그동안 헬기사격 목격담을 남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귀찮은 일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조씨는 “전씨의 모습을 보니 헬기 사격에 대해 말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며 “이번 재판에서 전씨의 뻔뻔한 거짓말이 밝혀질 것이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11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광주보훈병원에서 김영이씨가 5·18 당시 조비오 신부와의 인연을 떠올리고 있다.